

삭스핀, 메타규산소다로 뱅튀기

부피 확대해 특급호텔에 납품 ... 접착제 · 비누의 원료로 사용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원산지를 속이고 중량을 늘린 삭스핀(상어 지느러미)을 들여와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홍모(55)씨와 해당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월15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5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중국에서 가공한 냉동삭스핀 8만1648kg을 들여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뒤 국내 특급호텔 중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불량 삭스핀을 판매하면서 거래를 유지하고 하자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2009년 9월 서울시내 유명호텔 중식당 주방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주는 등 22차례에 걸쳐 호텔 측과 유통업자 등에게 2894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주로 중국산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홍콩이나 인도네시아로 원산지를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공장에서는 삭스핀에 화공약품을 처리해 부피를 부풀리고 이른바 물 코팅(일명 글레이징)을 한 뒤 급속 냉동하는 방식으로 15kg짜리 삭스핀을 20kg으로 늘렸으며, 중량이 늘어난 삭스핀 8만1540kg을 판매했다.

홍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삭스핀의 제조일자를 조작해 호텔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한국관광용품센터(KTSC) 등에 판매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 해양경찰서는 “삭스핀에서 규소와 나트륨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봐서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메타규산나트륨($\text{Na}_2\text{O} \cdot \text{SiO}_2 \cdot n\text{H}_2\text{O}$)을 사용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등 현지공장에서는 접착제나 세탁비누 등을 생산할 때 쓰이는 메타규산나트륨을 사용해 삭스핀 부피를 부풀리고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규산소다를 섭취하면 신체에 심각한 영향은 없지만 사람에 따라 호흡기나 피부에 이상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 기준에 따르면, 메타규산나트륨은 식용 유지류의 여과보조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류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제거해야 하지만 잔존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법은 없는 상태이다.

검찰은 홍씨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호텔 주방장과 중량 부풀리기를 시도한 다른 관련업체 2곳 및 업주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16>